

### 올챙이는 왜 안쳐주지?

“행사 당일 개구리 한 마리만 잡았다고 보도됐으나 4백여마리의 올챙이도 잡았다”

- 1천여명이 동원된 황소개구리 퇴치행사에서 단 한마리를 잡는데 그린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 간부,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며.

### 산림에 대한 사형

“올 여름 건기에 인도네시아에 삼림(森林)화재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이는 ‘산림에 대한 사형’을 의미한다.”

- 인도네시아 삼림화재 종합통제팀을 이끌고 있는 독일 삼림화재 전문가 루트비히 쉰들러, 동남아세아 건기중 채차 화재가 일어날 경우 그 강도와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경고하며.

### 중국의 물부족

“중국의 물부족이 세계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냉전시대 구 소련의 미사일 움직임만큼이나 중요하고 심각하다. 이것은 세계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.”

- 미 환경단체인 월드워치 레스터 브라운 회장,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중국이 갑자기 곡물수입국으로 바뀔 경우 세계곡물시장의 공급량 부족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타개개 나가야 한다며

### 자연을 아는 것이 우선

“자연보호, 환경보호 말은 많지만 정작 자연이 뭔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. 는 점에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.”

- 한국자연정보연구원 대표 노영대씨, 국내 첫 생태계 전문 웹진 ‘머갈람’을 만든 이유를 밝히며, 이 웹진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. [www.megalam.chollian.net](http://www.megalam.chollian.net)

## 사막의 본질

“일반적 통념과 달리 사막은 죽은 곳이 아니라 삶을 위한 싸움터임을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만큼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.”

- 서울 종로구 사간동 금호미술관에서 '사막일지' 라는 개인전을 열고 있는 박영국(52)씨의 작품 설명중. 참고로 사간동은 프랑스 문화원이 있는 곳이다. 지하철 역으로는 3호선 경복궁역에서 하차하면 된다.

## 노동신문 '농업부문은 종자혁명 이룩하라'

'축산 과수 냄새, 그리고 양어를 비롯하여 종자를 개량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켜 빠른 시일내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것이 장군님의 구상이며 의도이다.

종자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다름아닌 이 땅, 이 하늘 아래에서 농업생산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이 있다.

- 노동신문

농업과학자들에게 종자를 개량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「종자혁명」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김정일의 의도이기도 하다며

## 이북권 국립보건원 장내세균과장, 이질환자가 급증한 이유

“올해 이질환자가 급증한 것은 마늘·고추·김치 등 고유음식을 덜 먹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.”

- 국립보건원의 이북권 장내세균과장, 기자에게.

## 재활용되는 일본의 폐기물

“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늘어 큰 문제가 됐으나 폐기물을 돈을 받고 외국에 팔면 쓰레기반출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을 시작했다.

일본에서 버리는 폐기물이 다른 나라에서는 재활용된다.

- 일본 산업폐기물관리협회전국재단 우에다 고스케 대변인.